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방안

한세해*

<차례>

1. 서론
2. 전문대학 교양교과 운영에서 고려할 사항
3. 전문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서사문학의 가치와 의의
4. 교수학습의 사례
 - 1) 내용 설계
 - 2) 방법 운용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수도권 Y대학교의 인문 교양 교과목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인문 교양과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대학에서 인문-고전 교과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제고하는 가운데, 고전을 대하는 학습자의 태도와 반응 등에서 유념해야 할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문대학 학습자를 위한 학제 시스템이 기술인력 양성 교육에 집중된 전문교과 중심으로 편성되고, 이러한 경향성은 중등교육과정[직업특성화고]에서부터 기초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습자들의 일정부는 보통 교과에 대한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습자가 공존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에서는 교육 격차의 접점이 뚜렷하지 않는 텍스트를 매개로 배움의 공통 기반 분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육 콘텐츠의 접점은 바로 초등교육 혹은 그 이전의 텍스트로 환원되며, 그것은 결국 고전서사로의 복기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서사문학의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팀 프로젝트와 발표라는 지점에 착안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운영 방안 등을 탐색 제시해 보기로 한다. 종합

* 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 대우교수

적으로 학생들의 평가 만족도를 분석하여 전문대학 교양수업으로서의 고전의 효용성과 그 당위성을 최종 정리한다.

전문대학, 인문학, 교양교육, 고전서사문학, 역할, 방법론

1. 서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내 인문교양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확인되는 맹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고전문학의 활용성을 제안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대학 학습자의 인문교양지식 고양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고전의 가치와 의의를 검토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고전의 유용성을 깨닫는 동시에 자발적 성찰과 학습을 유도하여 그 배경지식의 확장과 활용 방안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공공연하게 인문학의 가치와 그 지평 확대의 필요성을 주목하면서 서도, 학문의 다양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대학 현장 내에서는 해당 강좌의 실제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 이른바 실용성 있는 과목으로 견지되지 못하는 인문학 연계 교양교과는 비인기 과목으로 터부시된다. 더욱이 인문계열 전공과가 직접적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실 전문대학의 교양과는 글쓰기나 의사소통, 특정 외국어 등의 실용 교과가 아닌 철학, 문학, 역사학 등의 강좌가 존립한다 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그나마 존재하는 그 교양과목의 개수 또한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전문대학 내 학습자들은 교양과를 그저 졸업을 위해 채워야 하는 부수적인 과목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전공 이외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담지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한다.¹⁾

특히 본 연구자가 유의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전문대학 교양과 학제 편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학습 욕구 의지 부재’와 연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학습자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는 열패감과 그와 연계된 학업 태도가 교강사의 교수법이나 텍스트의 선택적 접근에 의해 어느 정도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²⁾ 그리고 그것은 전문대학 학습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인문학의 가치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왜 학습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와 그 질문의 연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인문교양의 가치가 21세기 ‘지금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이 당위적인 명제에, 학습자에게 ‘그것이 왜 어떠한 의미에서 현재의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태도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인문교양으로서 특히 고전문학은 전문대학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당위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논구되었듯, 대학 내에서 고전문학의 가치 창출과 그 교육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전공생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역시 그 가치가 검증된 지 오래며, 그 방대한 연구 성과가 이를 방증한다.³⁾ 또한 고전텍스트는 현대의 문화 콘텐츠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1) 자세한 현황 보고는 본고 2장 <표1>과 <표3> 교양 교과목 현황 참조. 이와 연관, 대학 내 인문학 교양 강좌 수업의 교수법과 관련하여 전문대학 학습자들을 위한 수업 방안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연구자 역시 본 연구를 진행하며, 기존의 선행 업적을 참고한 결과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전문학교라는 특수성과 그에 기반한 학습자들의 태도와 학습 욕구도를 고취시킬 방안의 고민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 교양교과가 직업교육에 필요한 실용성 위주의 과목을 편성하게 된 제도적 이유 등과 관련한 기존 논의 정리는 이미정, 「의사소통 심화과정으로서의 토론 수업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8,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562~565쪽 참조.

2) 이에 연구자는 실제 현장 수업을 진행하면서, 난항을 겪었던 상황과 그 극복의 대안들을 고민함으로써 나름의 성공적 결실을 맺은 바 있기에 그와 관련한 논의를 재배열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문화와도 낯설지 않다. 요컨대 “대중에게 익숙한 고전은 새로운 것과 결합하여 신선한 것으로 변모되고, 낯선 고전은 대중에게 익숙한 것과 결합하여 수용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형됨으로써, 대중문화 콘텐츠의 토대”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대학 교양교육 차원에서도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학습자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론의 모색과 구체화된 전략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 전문대학 교양국어가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연구도 부족하지만⁵⁾, 특히 고전문학과 관련한 교과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반면, 고전의 가치와 다양한 활용가능성에 착목하여, ‘교양교육으로서 고전의 역할과 의의’ 등을 연구한 논의는 주로 ‘4년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⁶⁾

-
- 3) 김민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학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연구』 2,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5, 15~32쪽;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7~130쪽; 이은희, 「한국문화교육 자료로서 무속신화의 활용 방안 <자청비신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72, 중앙어문학회, 2017, 475~510쪽;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35~170쪽 외 다수
- 4) 김만수, 『문화콘텐츠 유형론』, 글누림, 2010, 32~34쪽; 김보현, 「웹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역사기록물의 문화 콘텐츠화 방식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238쪽 참조.
- 5) 이미정, 같은 논문, 2014, 565쪽.
- 6) 대학의 고전문학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인문대학/문과대학 혹은 교육대·사범대 소속의 전공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지거나 인문교양교육의 기초로서 그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박경주, 「대학교전교육문학의 현황과 그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 교육』 45,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20, 5~37쪽; 정선희,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 고전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7~426쪽;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5~82쪽; 황인순·김보현, 「대학 교양국어교육의 고전문학 텍스트 활용 연구-비평적 글쓰기를 위한 모형 구축을 중심

물론 이러한 실정은 앞서 언급하였듯, 개별 전문대학 본부에서 자체 편성하고 있는 교양 관련 교과과정 개설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테면, 교양학부나 교양과 등 교과의 체계를 관리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 기구가 없고, 수업 대부분을 전임교수가 아닌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과목 개발도 어렵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대학 내 교양과 연구에서 고전의 활용영역이 활발히 구축,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관련 연구자들 내에서도 그 인식이 제한적인 것은, 전문대학 학습자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이나 암묵적인 통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결과는 아닌가?⁸⁾

그렇다면 전문대학 학습자들에게 고전의 가치가 교양수업으로 어떻게 합목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전제는 먼저,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결코 4년제 대학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요컨대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기존의 ‘특정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고등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⁹⁾이며, “전문대학 역시 사회에 진입해야 할 기술 인력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어야 한다.”¹⁰⁾는

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31~54쪽.

- 7)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주현재(「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 -교양교육 운영현황과 교수요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326~327쪽)로부터 지적된 지 대략 10여 년이나, 최근 동향의 연구물을 살펴봐도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철민,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철학』 73, 한국교육철학회, 2019, 142쪽 참조.
- 8) 이와 관련하여 정철민(위의 논문, 149~152쪽)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편견을 ‘1. 교양교육은 전공교육보다 덜 중요하다. 2. 교양교육은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다. 3.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직업기초능력을 교양교육과 동일시한다’ 등의 3가지 관점으로 정리한다.
- 9) 이숙정·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380쪽.
- 10) 이미정, 같은 논문, 2014, 563쪽.

보편적 사실에 의거한다.

또한 “대학의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답과 관련하여, 교양교육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자세를 함양”하고,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확대시킨다.”는 제언¹¹⁾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곧 전문대학이 단순히 직업교육이나 전문연구인력만을 양성하는 공간만은 아니라는 전체에서, 교양으로서의 고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삶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 통찰력을 기르는데 기여하는 교육¹²⁾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위 전문대학은 직업양성기관이나 직업훈련소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Y대학교의 교양교과 <디지털인문학과 지식정보>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학내 고전수업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습자의 기본 태도를 분석하여 그 안에서 유념해야 할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문학의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접근하여, 그 가치 탐색을 위한 향후 과제와 의의 등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수업 방향의 구체적인 설계 작업은 전문대학 학생들을 위한 인문교양과 지평확대를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평가 만족도를 분석하여 전문대학 교양수업으로서의 고전의 효용성과 그 당위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2. 전문대학 교양교과 운영에서 고려할 사항

본 대학의 학부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메카트로닉스 학부¹³⁾, IT학

11) 송명진, 「교양으로서 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전문대학의 읽기·쓰기·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8~10쪽.

12)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2쪽.

부14), 콘텐츠디자인학부¹⁵⁾, 지식서비스학부¹⁶⁾이다. 제시된 학부의 세부학과를 참조하면,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에 목표를 두고, 산업인력양성중심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취업을 전제한 교육 방향은 전공과를 중심으로 편재되었고, 교양교과의 편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아래 제시된 <표 1>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대학은 전문대학 교육의 특성상, 개별 전공에 따라 2~3년제 학과로 구별되고,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조건하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과>	<교양학점>	<전공학점>	<총 취득학점>
2년제(2018년 이전)	8학점 이상(10%)	50학점 이상(62.5%)	80학점 이상
2년제(2019년 이후)	8학점 이상(11.1%)	60학점 이상(83.3%)	72학점 이상
3년제(2018년 이전)	12학점 이상(10%)	80학점 이상(66.7%)	120학점 이상
3년제(2019년 이후)	12학점 이상(11.1%)	90학점 이상(83.3%)	108학점 이상

<표 1> Y대학 졸업 최소 이수학점

<표 1>을 살펴보면, 2018~2019년을 거점으로 Y대학의 교양학점과 전

- 13) 메카트로닉스 학부의 세부학과는 이하와 같다.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전공, 기계공학과 기계설계전공,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3D프린팅금형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14) IT학부의 세부학과는 이하와 같다. IT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영상보안전공, e-비즈니스학과, 스마트콘텐츠학과 모바일앱전공, 스마트콘텐츠학과 VR게임전공
- 15) 콘텐츠디자인학부의 세부학과는 이하와 같다. 테크노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테크노산업디자인학과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학과, i-패션디자인학과
- 16) 지식서비스학부의 세부학과는 이하와 같다. 식품영양학과, 호텔관광·외식조리학과, 호텔관광전공호텔관광·외식조리학과 외식조리경영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일본비즈니스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중국비즈니스전공,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 경영학과 유통물류전공, 경영학과 세무회계전공, 경영학과 항공경영전공, 경영학과 광고미디어경영전공, U-보건의료행정학과, 보건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공학점의 비율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요컨대 2019년을 이후로 낮아진 총 취득학점 대비, ‘전공학점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교양학점의 비율은 별 차이가 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해당 전문대학이 학습자 자율 학점 선택의 폭을 줄이고, 사실상 전공 교과과정을 주로 이수하게끔 의무화 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황은 전공학점 대비 ‘교양학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4년제 종합대학[C대학교]의 사례와는 대조적이다.¹⁷⁾ Y대학의 교양교과 대비 전공교과의 이수 비중은 여타의 4년제 대학들과 비교될 때 차이가 더욱 극명해진다.

<대학>	<교양학점>	<전공학점>	<총 취득학점>
D대학교	26학점 이상(20%)	42학점 이상(32.3%)	130학점 이상
S대학교	29학점 이상(22.3%)	40학점 이상(30.7%)	130학점 이상
H대학교	26학점 이상(19.4%)	54학점 이상(40.2%)	134학점 이상
C대학교	29학점 이상(22%)	45학점 이상(34.1%)	132학점 이상

<표 2> 서울권 4년제 대학별 졸업 최소 이수학점¹⁸⁾

<표 2>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교육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할 손치더라도, 4년제 대학의 교양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비율이 <표 1>의 Y대학교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교양과 비율은 2배 부족하고, 전공학점은 2배 이상 요구된다. 더욱이 2019년 이후, Y대학의 전공과 취득학점의 상향 조정은 교양과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 선택의 다양성은 물론 자율성까지 제한하고 있는

17) 서울권 4년제 C대학의 경우, 2003~2008년 총 18학점에 불과했던 교양과 졸업학점은 2016년 이후 29학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공 졸업학점 역시 종전 36학점에서 2011년 이후 45점으로 상향했다.(졸업학점은 132점으로 동일) 한편, 이렇듯 대학별 전공과 대비 교양과의 상하비율 추이 역시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관련 논의는 후일을 기약한다.

18) 각 대학 홈페이지 교과과정 참조하였으며, 개별 종합대학 전공 특수성에 따라 다소 취득학점의 차이는 있으나, 그 평균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상황으로 연계된다. 전문대학이 교양교과를 요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의 전례는 과거에도 지적되어 왔다.¹⁹⁾ 그러나 현재에도 여전히 다르지 않은 교양과의 편제는 앞서 지적한 대학이 추구하는 전인적, 교양적 인재상에 다가가기에는 아직도 열악한 요건에 놓여 있다. 또 취업에만 치중한 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의 도야를 도외시킬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다. 때문에 전문대학 학습자들 교양과 선택 역시 의지박약인 경우가 왕왕 있다. 관련 논의는 Y대학 교양 교과목 현황을 소개한 뒤 후술하기로 한다.

다음은 본 연구자가 강의한 Y대학의 해당 교양 교과목 일체이다.

<인문계 교양 교과목명>	학점	시간	<기타 교양 교과목명>	학점	시간
감성인문학	2	2	10만원으로 창업하기	2	2
공감프레젠테이션과발표기술	2	2	3D 프린팅	2	2
논리적글쓰기와의사소통	2	2	4차산업혁명과미래설계	2	2
디지털인문학과지식정보	2	2	국제매너와에티켓	2	2
재미있는한국사와사고능력	2	2	감성포토샵	2	2
창의적문제해결능력	2	2	부자가되는창업아이디어	2	2
한국문화의이해	2	2	데이터베이스의활용과 빅데이터의이해	2	2
기초영어회화	2	2	사회봉사와의이해와실천	2	2
시트콤영어	2	2	인터넷윤리와예절	2	2
팝송과영화로배우는영어회화	2	2	재미있는생활금융	2	2
행복한영어	2	2	창의적스타트업첫걸음	2	2
잉글리시마이스토리	2	2	최신IT기술의이해	2	2
애니메이션일본어	2	2	커리어디자인	2	2
기초일본어	2	2	컴퓨터활용능력	2	2
기초중국어	2	2	희망찬나의진로찾기	2	2
재미있는중국어	2	2	대인관계심리학	2	2

<표 3> Y대학교 교양 교과목 일체²⁰⁾

19) 이미정의 연구(같은 논문, 2014, 562쪽)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2년제 7개 전문대학의 교양 관련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교양과목은 전공 대비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다.

20) 이밖에 e러닝 교과목으로 ‘<리더십AtoZ>, <성과를높이는조직내문제해결>, <식생활

본 연구자가 담당한 교양 교과목은 <디지털인문학과 지식정보>이다. ‘디지털’과 ‘인문학’의 결합은 전통적 인문학 강좌라는 인상을 거두는 듯하다. <감성인문학>이라는 교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요컨대 해당 교과목-디지털인문학과 지식정보-은 자칫 고루하고 딱딱하다고 여겨질 만한 인문학을 지식정보사회의 시류에 부흥하는 강좌명으로 명명하며, 해당 대학에서 표준한 강좌 운영 방법 역시 이론적 지식 전달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요구한다.²¹⁾

주지하듯 ‘인문학’이란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인문학이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며, 이때의 인문학은 공시적·통시적인 관점에서 나열될 수 있다. 또 인문학의 영역에서 문사철(文史哲)이란 어떠한 지점에서는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에서 혼효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문학이란, 범박한 의미에서 오늘날 21세기의 학문만을 다룰 수도 태곳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또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는 것은 물론 이 시·공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광의한 영역에서 대학 내 인문학 강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개별 학교마다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겠으나, 인문학 교과 설정과 규정은 해당 학과나 그 담당 교수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 교육에서 인문학이라는 범주나 위계 등의 가치판단은 대개 해당 교수에 의해 설계되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수자의 주전공이나 관심 분야에 기반한다. 그리하여 그 인문학의 질서는 제 각기의 가치를 지니며 해당 강좌들에서 재배열된다. 물론 이때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문

습관과건강), <실전기획스킬>, <인터넷쇼핑몰창업기획> 5개 교과목이 존재한다.

21) Y학교 요람에서 표준한 교과목개요 및 특징은 같다. “디지털인문학은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정보를 습득한다.”

학에 대한 이해와 적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생각 방식과 깊이를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 교양교육에서 반드시 염두해야 할 점은 교과과정을 수용하는 학습자의 태도가 그다지 의욕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앞서 <표1>과 <표3>에서 언급하였듯, 전문대학 교양 교과목 자체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이수 학점의 비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의 사례를 왕왕 발견한다.²²⁾ 이에 본 연구자가 해당 교과목을 처음 운영할 때 학습자들과 나누었던 질의응답의 사례를 일례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Q : 이 강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A1: 해당 강좌가 '선택 가능한 교양과 중 (시스템상) 맨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A2: (수강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다른 교양과의 인원이 다 차서...

A3: '디지털'이라는 강의명이 마음에 들어서...

A4:(무응답)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 강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라 묻는 교수자의 질문에 대해, “해당 교과 <디지털인문학과 지식정보>가 '선택 가능한 교양 교과목 중 (시스템상) 맨 위에 위치[자리]'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은 (실상 어떤 과목을 수강하여도 무관하다는 의미에서의) 교양과를 대하는 수용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애당초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차치하더라도 “'디지털'이라는 강의명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등의 의견을 개진한 학습자가 있었던 것, 곧 (대다수가 무응답인 상황에서) 응답 의지를 확인

22) 참고로 Y대학은 취업·창업율 평가에서 전국 톱5 안에 선정되는 등, 상위 랭크되고 있는 학교 중 하나이다. “[2020 한경 대학 취업·창업 평가 농협대, 전문대학 종합 1위 (···)” 『한경 잡앤조이』 2020.12.8. http://www.jobnjoy.com/portal/job/special_view.jsp?nidx=441316&depth1=1&depth2=3&depth3=1 (접속일 2021.1.22.)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인문학과 직결되는 주제는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교양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해당 교과목의 명칭이 왜 <디지털인문학과 지식정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여타의 강좌명이 <감성인문학>이나 <재미있는한국사와사고능력>으로도 명명된 것인지 유추할 수 있게 한다.²³⁾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의욕이 부진한 경우, 교수자는 강좌 운영 전반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교육 목표와 그 방향성 설정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학문적 지식의 전달과 창출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과정이나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²⁴⁾ 특히 전문대학의 인문학강좌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텍스트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학습 진작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안 검토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교육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²⁵⁾

그러나 전문대학의 학습자 모두가 앞서 언급한 선행 사례와 부합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인의 성향과 능력 혹은 관심도에 따라 천양지차를 보일 것이다. 다만, 인문학과 전공 교양의 지식 연동이 밀접한 관계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특유의 학제 시스템은 학습자 동기부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전문대학 학습자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직업교육이나

23) 이러한 점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해당 전문대학 본부의 경우는 교양과를 대하는 학습자의 수용 태도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강좌명을 위와 같이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24) 이러한 의미는 앞서 정철민의 연구(같은 논문, 2019, 150쪽; 본고의 주 8 참조)에서 언급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내용의 편견으로 언급한, 이른바 인기 있는 교과나 단순 흥미 교과-예컨대 바리스타 입문과 같은 교과목의 의미와는 궤가 다르다.

25) 이때 학습자를 위한 교수자의 청찬과 독려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바, 관련 논의는 4장 2절의 수업 방법 운용과 관련한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특성화고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²⁶⁾ 그리고 이때 직업특성화고에서의 국어, 수학, 과학 등과 같은 주요 보통교과의 위상이 주변적이라는 논의가 참고된다.²⁷⁾ 즉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경우, 기술인력 양성 교육에 집중한 전문교과 중심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통 교과에 대한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처럼 유비한 경향성의 학습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결국 학습자가 인문학의 가치를 체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노출된 환경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 인식할 때에야만 비로소 그에 조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셈이다.

3. 전문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서사문학의 가치와 의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문대학 교양교육 운영에서 고려할 사항은 인문교양교과 수용자의 태도가 결코 주체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전공과에 편향된 학제 시스템과 그에 따른 교양교육 학습의 동기 부재,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부터 도외시된 교육 영향, 그리고 학습자 개별 상황에 따른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열패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문대학 자체 내에서도, 4년제 종합대학이 상대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인문교양교과의 위상 정립이 실현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저 성

26) 송명진, 같은 논문, 18쪽. 해당 연구에서는 2014년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전문대학 학습자 225명으로 실시한 설문대상의 결과, 일반고 출신의 비율이 71%(16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업특성화고 출신 유형이 전체의 23%(51명)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7) 박나실,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나타난 보통교과의 위상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58쪽.

토로만 끝낼 수 없는바 실현 가능한 대안 과정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문적 지식의 전달과 창출 관계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사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효용성 있는 방법론을 고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전문대학 학습자들이 지나온 교육과정을 반추해보자. 앞서 전문대학에는 직업특성화고 출신의 학습자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직업특성화고 재학생의 대부분은, 중학교 내신 성적이 80~9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²⁸⁾으로 확인된다. 곧 직업특성화고 출신의 중학교 기초과목 학업 성취도가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자 모두가 특성화고 출신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유념할 점은 전문대학 학습자들의 기초학습능력수준이 4년제 종합대학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다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출신 고등학교 유형의 비율상, 학습자 간의 중등교육과정 성취 정도나 격차의 진폭이 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습자가 공존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에서는 교육 격차의 접점이 뚜렷하지 않는 텍스트를 매개로 배움의 공통 기반 분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문대학생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주제로 인식되지 않는 ‘인문학’ 강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교육 콘텐츠의 접점은 바로 초등교육 혹은 그 이전의 텍스트로 환원되며, 그것은 결국 고전으로의 복기이다.

주지하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동 출판물 시장에서 여전히 고전은 주요 지분을 차지한다. 그리하여 옛이야기는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로 거듭나고 있는 한다.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모티프 일부만을 변환하거나 혹은 차용하되 결말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등의 출판 사례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²⁹⁾ 이러한 고전은 문자로 된 텍스트에만 영향을 끼치는

28) 위의 논문, 77쪽.

29) 예컨대 제주도 신화 <원천강본풀이>가 『북타러 간 총각』(키즈엠, 2012)으로 재편되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또 다른 스토리텔링의 원천이 된다. 바로 “고전문학 텍스트는 횡적 적용이 용이한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문자 매체, 영상 매체, 연행 매체, 복합 매체 등 다양한 매체로 재생산”³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 특히 산문성을 지닌 옛이야기들의 경우, 여타의 영역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자라면 웅당 〈단군신화〉에 대해 모를 이 없을 것이며, 전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설화 〈선녀와 나무꾼〉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하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고전’이야말로 그 기억의 소환을 통해 낫설지 않은 것을 낫설게 할 수 있다는 데에서, 바로 인문학적 성찰과 연계를 가능케 하는 유용한 텍스트라는 점이다. 곧 학습자가 막연히 어렵다고 느끼는 인문교양의 접근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 왔던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재발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아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개인차에 따라 아련한 기억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나, 학문적 접근은 이질적이지 않으면서도 학술상의 호출은 어떠한 텍스트보다 빠르다. 전문대학 학습자의 교양학습에서 고전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때 의미하는 고전의 범주가 다소 범박하므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고전은 설화, 국문 시가, 국문 소설, 한문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문학성을 띠고 발전해 왔으며,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며 형성되어 왔다. 이들을 간단히 장르와 언어적 차이의 두 가지 차원에서만 구획해 살펴보자. 장르적 차원에서는 산문과 운문으로 나뉠 것인데, 이 안에 교섭하고 있는 장르 또한 배제하

거나, 〈아기돼지 삼 형제〉 설화는 『아기 돼지 세 자매와 늑대』(한얼예듀, 2012)로, 안데르센(1805~1875)의 〈미운오리새끼〉를 『못생긴 아기오리』(한국듀이, 2005)라는 현대작으로 각색하여 결말을 바꾸는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30) 황인순·김보현, 같은 논문, 2017, 34쪽.

기 어렵다. 장르적 접근에서 볼 때, 문학의 기원을 서정류와 서사류에서 찾는 학계의 논의가 분분하지만, 논고의 쟁점과는 무관하므로 각설하기로 한다. 또 언어적 차원에서는 구술문학과 기술문학의 차이로 양분될 수 있을 것이며, 기술문학은 (출현 시기상) 문자 사용의 차이로 나뉠 수 있다.

논고가 고전문학의 범주를 장르와 언어적 차이로 나누어 간략히 제시한 이유는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텍스트나 자료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데 있다. 곧 전문대학 학습자의 교양교육에서 한문학을 이용 접근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 본다. 한문학 장르의 특성상, 당대의 실증이나 실제 등을 구현하는 문학에 집중하거나 전통적 문학론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자로서는 그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과거의 문학을 역사적으로 소급해 보았을 때, 우리의 서정시 갈래들은 대개 한문이 전래된 이후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³¹⁾

그러므로 전문대학 교양교과에서는 기록문학 이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이야기나 한글로 된 서사문학 일군에서 찾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라 본다. 예로부터 구술문학의 한 갈래인 설화는 “그 자체의 변모 발달과 더불어 기록문학에 소재·양식·상상력을 제공하는 원초적 자산으로 작용”³²⁾하였다. 또 설화가 지닌 원형성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변이 과정을 거치며 현재화되었고 동시에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되었다.³³⁾ 다시

31) 국문시기는 논의의 대상이나, 근원 설화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의미를 재생산, 재창출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로 한다. 논고가 고전교육에서 시가류보다 서사류에 집중하는 것은, 전문대학 학습자를 위한 교양교육의 1차적 출발점에서 유효하다는 의미이며, 고전문학의 교양과정이 단계별로 확산될 경우에는 고전시기를 심화교육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32)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13, 23쪽.

33) 설화를 신화, 민담, 전설 등의 양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실상 큰 의미가 없다. 요컨대 특정 종족이나 역사집단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화는 전설로, 혹은 민담으로 변환되고 그 사이를 오간다. 곧 신화 전설 민담은 후대의 편의에 따라

말하면, 설화는 공동체가 뿌리박고 있는 시공간과 그로부터 사유하던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문화 일체가 반영된 상상력의 총체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고전문학 교육의 타당성과 관련한 선행 논의에서는 설화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텍스트로서 그 존재 가치를 확인³⁴⁾하기도 한다. 따라서 논고는 고전의 범주를 익히 잘 알려진 옛이야기 곧 서사가 중심이 되는 텍스트에 한정하여 고전문학 교육의 중핵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전문대학 인문교양로서의 고전교육은 학습자간 교육 격차를 고려할 때, 장르·언어적 이질감이나 부담감이 적은 고전서사문학이 적합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대중적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과거와 현재의 공동체가 조우되는 텍스트로서 고전서사문학의 효용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4. 교수학습의 사례

1) 내용 설계

앞서 언급하였듯, 설화는 서사문학의 원초적 뿌리로 거론되었으며, 전래된 설화가 소설로 정착한 일례는 <홍부전>·<심청전>·<춘향전>·<옹고집전> 등으로 다양하다. 예컨대 조선후기 판소리계 소설 <홍부전>은 ‘방이 설화’나 ‘박 타는 처녀’ ‘동물 보은 설화’ ‘모방의 실패담’ 등 전래 설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때 ‘동물 보은담’과 ‘모방의 실패담’ 같은 설화는 <선녀와 나무꾼>이나 <옹고집전>에서도 중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를 다음 차시 강의 교안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나름의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4) 오세정의 연구(『한국 신화를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112쪽)에 따르면, 신화는 “단순히 과거에 생겨난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론적 기반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흥부전>은 전문대학 학습자들과 함께 읽고 토의하는데 적합한 교육 자료 중 하나이다. 이 고전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친숙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렇다면 통상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식을 갖는 <흥부전>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현대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이 익숙한 고전서사를 활용하는 것이 전문대학 인문교양과에서 유용함을 명증하고자, 해당 교안의 실례를 제시하여 그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아래 간단히 그림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방법론의 의의와 고전을 다시 읽는 이유 및 그 관점의 타당성 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림 1> <흥부전> 다시 읽기 교안 사례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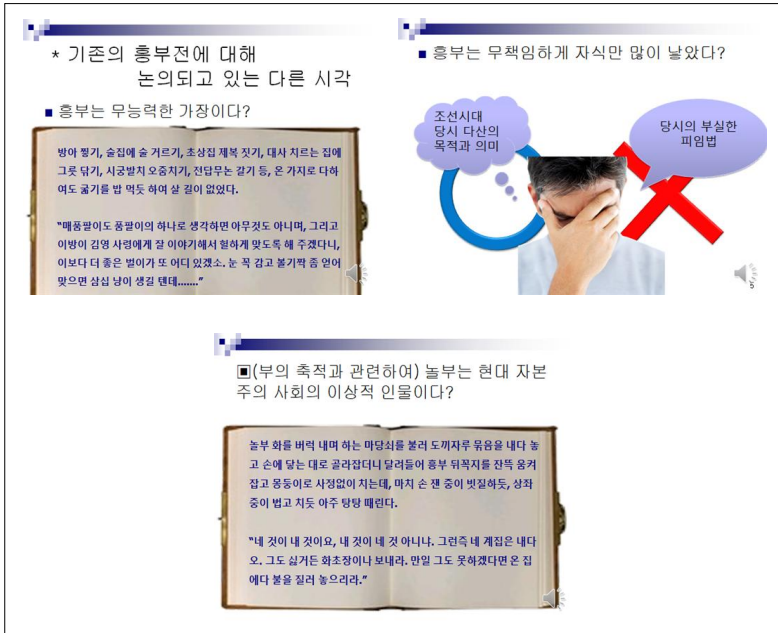
먼저 <홍부전>을 강의하기 전, ‘읽기 전 학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홍부전>에 담긴 주제를 상기하게 한다. 익힐 잘 알려져 있듯, 기존의 <홍부전>은 권선징악이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형제간 우애 중심 교육을 설명하는 텍스트로 활용되고는 하였다. 그러나 당대 조선후기라는 역사적 상황을 소급하면, 이 형제간의 갈등은 계층이나 신분간의 갈등을, 그것도 경제적인 빈부의 관점에서 새롭게 교육할 수 있다. 일단 학습자에게 이러한 점을 유념하게 한 뒤, 다시 요약본 <홍부전>을 일독³⁶⁾하거나 관련 시청각 자료³⁷⁾를 제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읽기 후 학습’ 시간으로 이어지며, 이때 <그림 1>에서 제시한 3가지 질문과 관련 원전 자료의 소개를 통해, 등장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진행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5) 위와 같은 수업 운영은 본 연구자가 강의했던 C교육대학교에서의 학습자들의 발표 사례에 아이디어를 받아 해당 교안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렇듯 교수자와의 피드백을 통해,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친 학습자들의 발표물은 또 하나의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 설명은 4장에서 구체화하기로 한다. 해당 그림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blog.daum.net/lmw4753/12462394>(접속일 2021.2.19.) <https://blog.naver.com/thd7023/220471264367>(접속일 2021.2.19.)

36) 요약본 자료를 읽는 것은 전문대학 학습자에게 원전으로서의 <홍부전>은 고어와 구어의 표현이 다수 포진되었기 때문에 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읽기 후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통해, ‘원전으로서의 <홍부전> 중, 유념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을 발췌 소개하고 해석하는 수업을 병행하였다.

37) 본 교과명이 <디지털 인문학과 지식정보>이고, 학교에서 정립한 교과 목표가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습득하는 전통적 인문학의 계승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흥부전> ‘읽기 후 학습’ 교안 사례

<그림 2>로 제시한 교안 일부를 살펴보면, 1) 흥부는 그저 아이만 많이 낳은 무능력한 가장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자처하다 심지어 관아에서 매를 대신 맞는 매품팔이까지 나섰다는 점 2) 조선 후기 농업사회에서 다산(多産)이 갖는 의미는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 한편으로 당대의 의술이나 피임법의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3) 놀부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빈자를 착취하는 갑질 사범이라는 점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조선후기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자는 관련 <흥부전> 원전을 슬라이드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돕는다.

이어 형제간의 갈등을 다음과 같은 ‘심화 논제’로 제공하여, “흥부와 놀부는 형제인데, 왜 형은 부유하고 동생은 가난한 것인가?”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록 한다. 그리하여 17세기 이후 조선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상에 초점화하여 들여다보면, 놀부와 흥부의 빈부차는 경제적 관점에서 계층이나³⁸⁾ 신분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교육으로 가능해진다. 요컨대 성리학의 이념이 정착된 조선후기에는 양란(兩亂)을 거치면서 혈연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으며, 혈통을 중시하여 남자 특히 ‘장자 중심의 가족제도’가 고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의 세습’이 형제임에도 흥부와 놀부의 경제적 격차를 불러일으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흥부전>은 조선후기 가족제도가 정착된 시기를 배경으로 잘 사는 형과 못 사는 동생이 다수 탄생하는 사회상을 담아낸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³⁹⁾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부의 세습이 오늘날 양산되고 있는 빈부 격차의 문제들, 소위 ‘금수저·흙수저론’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일컫는 ‘마태효과’와 연계하여 이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탕주의와 대박을 꿈꾸며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가?의 문제로 귀결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는 <흥부전>의 다시 읽기를 통해, 소수에 부가 독점되는 현상과 자본에 매몰되어 공공연하게 갑질 사례가 자행되는 현실을 반추해 보고, 어쩌면 흥부가 대박을 타는 모습은 실체가 아닌 상징과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닐지 성찰해 보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과 흥부의 사회가 유리된 것이

38) <흥부전>이 조선후기 농민층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최운오, 「흥부전과 조선후기 농민층 분화」, 『역사비평』 57, 역사비평사, 2001, 274~293쪽 참조.

39) 17세기 작성된 「분재기」(分財記)를 살펴보면, 조선전기까지 남녀 균등분배되던 상속제가 장자에게만 집중되는 양상으로 변화 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흥부전>에 대한 학계 연구 동향을 소개한 정창권의 연구(「한국 고소설을 통해 본 한국역사문화의 트라우마와 치유 -역사, 사회, 가족 ; <흥부전>에 나타난 분가(分家)와 우애(友愛) 문제」,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114~117쪽)가 참조됨.

아니라는 측면에서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고전서사문학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이어져 있는 현재적 이야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서사의 가치는 앞서 언급한 바 ‘오늘날 학습자들에게 왜 고전을 학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게 한다. 곧 과거 공동체의 사유가 오늘날의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존재론적 성찰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이러한 자각이 선행된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여 그 내포와 외연을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에 소개한 〈홍부전〉의 교안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익히 알려진 옛이야기들을 다시 읽고 추적하는 그 시선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의 상황과 연계하여 이야기를 재구해 보는 수업 방식은 교강사의 전공, 역량에 따라 이채로운 진폭의 변주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열린 텍스트가 바로 고전서사문학이라 본다.⁴⁰⁾ 물론 이 선행 과정에 객관적·논증적 읽기로의 과정을 전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리하면, 논고는 고전의 범주를 익히 잘 알려진 옛이야기 곧 서사가 중심이 되는 텍스트에 한정하여 고전문학 교육의 중핵으로 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곧 전문대학 인문교양 교육으로서의 고전은 대중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과거와 현재의 공동체가 조우되는 텍스트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효용성을 검증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한 교양교육 방법과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구성, 고안해 낸 팀프로젝트 발표물의 단계별 진행 방식과 최종 결과물을 소개하며, 그 성과의 의의에 대해 소개

40) 신화의 현대적 접근도 유효할 것이며, 특히 제주의 여성 신화와 관련된 여신들의 적극성과 친귀성은 현재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또 (전통적 이야기로서의) 이동 출판물들의 주제가 현대적으로 변주되거나 변모된 양상을 찾고, 그러한 변화의 이유를 짚어보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고의 주 29와 관련된 내용 참조.

하고자 한다.

2) 방법 운용

고전서사문학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가능하다. 하나는 앞서의 방법처럼 강의 내용을 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 간 팀프로젝트 기획 주제 선정 범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수업 설계와 관련한 내용은 앞 장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팀프로젝트 운영과 피드백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서술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본고가 재차 강조한 교양교육으로서의 인문학 강좌의 달성 목표는 전통적 인문학의 실체를 바로 알고 현대적 의미로 재편하여 지식의 저변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식의 학습은 교수자 일방향의 강의 방식으로 그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구구이 논할 필요도 없이, 강의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체득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팀프로젝트와 발표를 결합한 방식은 여타 교과목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교과목의 운영 역시 효율적인 수업의 일환으로써, 팀프로젝트 수업을 병행하였다.⁴¹⁾

후술하겠지만 학습자 간 팀프로젝트 기획발표는, 곧 고전서사문학을 현대적인 시점에서 되짚어 다시 읽는 과정은 팀 고유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띤 채 적극적인 텍스트 읽기로의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효한

41) 위의 <표 3>에서 확인한 바처럼, 해당 전문대학의 교양과 수업이 많지 않았던 만큼, 수강생 정원 자체도 50명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팀프로젝트 운영을 효율적인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특히 이 문제는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 본부의 의지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려 있다고 보아 쉽게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고 대학 본부의 입장만을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실제 대학 현장 내에서 활용가능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방안이다. 팀프로젝트 운영의 기본 전제에는 학습자 간 토론 및 토의의 과정을 거친 경쟁적 말하기와 이를 수렴한 협의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토론·토의는 수업 운영에서도 두루 활용 가능한데,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간단히 도표화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팀프로젝트 발표의 접근 방법	구체 사항
1	주제 중심 접근	주제 의식과 관련 제반 상황의 이해(강의) → 자기 의견 발표(독립적) → 협상하기, 함께 구성하기(그룹별 토론·토의)
2	과정적 접근	토론·토의 전 활동 → 토론·토의 활동 → 피드백(동료, 교수) → 다시 쓰고 발표하기

<표 4> 토론·토의법을 활용한 팀프로젝트 발표의 접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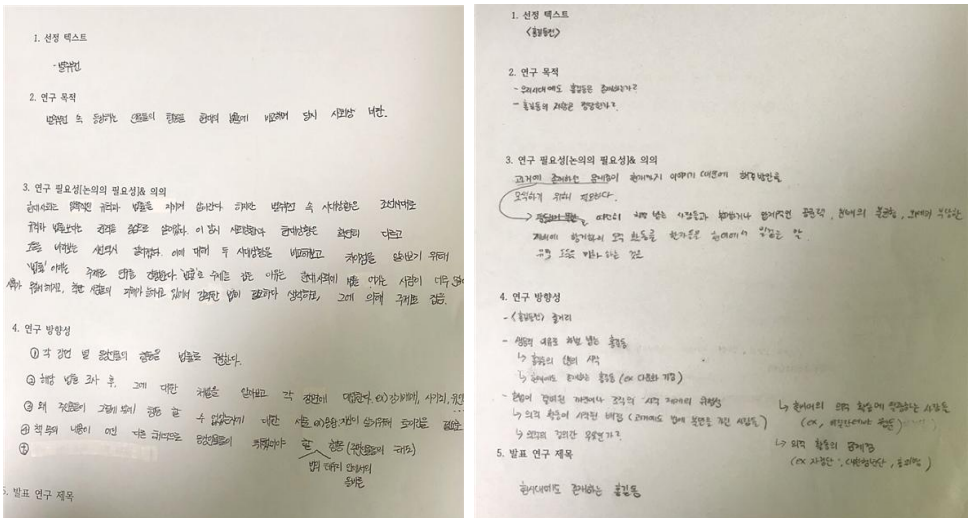
<표 4>에서처럼, 팀프로젝트 발표의 진행 방법은 주제 중심과 과정적 접근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제 중심의 접근’은 강의한 내용⁴²⁾을 바탕으로 관련 토론·토의의 과정으로 논의를 심화시키는 방식이다. 강의 초반에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이후로부터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 해당

42) 본 교과목의 대략적인 강의 설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주차: 강좌 소개 및 안내
- 2주차: 구술문학과 기술문학의 차이
- 3주차: 신화의 범세계성과 현재적 가치
- 4주차: 영화 속 영웅신화
- 5주차: 애니메이션 <오늘이>로 보는 무속신화
- 6주차: <장화홍련>과 드라마로 보는 계모이미지의 지속성
- 7주차: <홍부전>의 장자상속제도와 마태효과
- 8주차: 중간고사
- 9주차: <심청전> 효란 무엇인가
- 10주차: <춘향전>으로 보는 통과의례
- 11주차: 현대적으로 재편되는 아동문학의 변모 양상
- 12주차~14주차: 팀프로젝트 발표와 토론
- 15주차: 기말고사

고전의 실체에 접근하여 관련 주제를 현대적 의미로 이끌어낸다. 이후 해당 주제 의식에 대한 개인 학습자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강좌 내용과 비슷한 주제의식이 나타나는 다른 텍스트나 관련 사례 등을 논의해 보는 방식으로 소그룹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그룹 토론을 다시 ‘과정적 접근’으로 접근하면, 이 토론은 향후 발표할 텍스트를 염두, 선정하는 예비 작업이 된다. 학습자들은 매주 차마다 팀프로젝트 토론·토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팀이 발표하게 될 관련 텍스트를 조사, 공유하며 그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협의의 과정에서 교수자는 발표개요서를 요청한다. 해당 발표개요서의 샘플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팀프로젝트 발표 개요서 샘플

발표개요서란, 팀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최종 선정할 텍스트와 연구 방법 등을 기술하는 것인데, 항목별로 소개하면 “1. 선정 텍스트 2. 논의 목적 3. 논의의 필요성과 의의 4. 연구 방향성 5. 발표 연구 제목”이 된다. 발표개

요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토론한 내용이 그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의견이 모인 주제를 좁히고 동시에 순차적 단계를 거친 토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중간보고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필두로 학습자들은 팀프로젝트의 방향과 목적의식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분석해 나갈 수 있게 돕는 일종의 ‘틀’을 갖추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렇게 발표개요서가 만들어지면, 교수자는 관련한 피드백을 준다. 특히 이러한 논의가 ‘왜 어떠한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주목할 만한가?’에 집중하여 발표 과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설득력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⁴³⁾

또한 발표개요서에 요청된 해당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방향성’은 학술적 글쓰기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대학 내에서 전공이나 교양과에서 학술적 글쓰기 혹은 보고서 작성은 필수적이지만, 전문대학 학습자들은 학제 시스템상 글쓰기의 기본과 과정, 다양한 글쓰기 등을 실습하는 기초 교양강좌의 설계가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 학습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많지만, 위와 같은 팀플 발표개요서 작성은 전문대학 학습자들이 올바른 보고서 쓰기를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요컨대 팀 구성원들은 토론·토의를 거쳐 발표개요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제 탐색, 자료 찾기, 개요 짜기”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개요서의 1차 피드백을 토대로 다시 학습자들은 “초고 쓰기, 수정하기(&인용과 주석 사용법)”를 진행하고 교수자로부터 그 제반 피드백을 2차로 받음으로써 보고서 한 편을 완성하

43) 이러한 피드백 과정에서 교수자 또한 학습자로부터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아이디어(요컨대 온라인 게임이나 유튜브 프로그램 사례 등의 제시)를 제공받기도 하는 등, 상호피드백은 양자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 역시, 학습자들의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강의를 기획하는 데 활용한 바 있으며, 앞서 소개한 <홍부전>의 사례가 그 중 하나이다. 본고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본문의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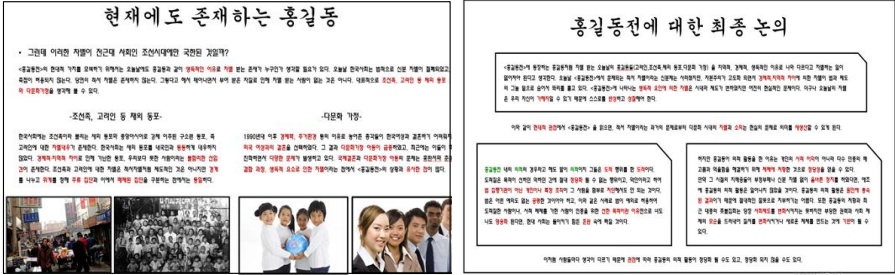
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의 체계를 순차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발표개요서를 통해 수집된 학습자의 고전서사문학의 유형과 관련 텍스트를 소개하면 <심진전>·<별주부전>·<콩쥐팥쥐전>·<홍길동전>·<박씨전>·<장끼전> 등의 고전소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밖에 국내외 설화 <온달설화>·<소가 된 게으름뱅이>·<재과 콩나물>·<헨젤과 그레텔> 그리고 그리스로마신화 <이카루스의 날개>가 선정되었다. 수업에서 주로 한국의 전통적 서사문학을 강의 교안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표 텍스트의 대개가 다소 고전소설에 치우친 경향성을 보인다. 또 학습자들이 선정한 텍스트들은 익히 잘 알려져 있거나, 알고 있는 전통적 이야기의 서사를 선택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고전서사를 활용한 팀프로젝트 진행은 학습자들에게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글 읽기에 동참하게 하고, 익히 알고 있던 텍스트를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생산적인 토의·토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덧붙여, 유일하게 그리스로마신화를 발표 텍스트로 삼은 팀의 경우, 개별 학습자가 흥미롭게 읽은 신화의 주요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중심화두를 던지면서 그 가치와 의의에 대해, 함께 읽고 분석하기를 요청하는 설득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발표개요서의 피드백 이후에도 여러 번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은 최종 결과물인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아래에서 관련 발표 자료를 소개한다.



목차				
01.	02.	03.	04.	05.
홍길동전 줄거리	홍길동전의 등장인물	홍길동전의 주요 사건	홍길동전의 사회적 배경	홍길동전의 현대적 의의



<그림 4> 팀프로젝트 발표 사례

위의 팀플 발표에서 학습자들은 <홍길동전>을 다시 읽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홍길동의 의적 활동을 자경단 활동과 견주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에 자경단의 활동의 긍정적·부정적 사례를 통해, 관점에 따라 의적 활동이 정당화될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생득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의식과 관련한 것이다. 요컨대 홍길동처럼 차별받는 오늘날의 홍길동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례로 고려인, 재중동포를 조선족이라 폄훼하는 재외동포 인식문제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거론한다. 오늘날 <홍길동전>과 같은 적서 차별이라는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적, 지역적 차이에 의한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하여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생득적 요인에 의한 차별은 시대와 제도가 변하였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차별에 우리도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정리하였다.

이 발표는 기존의 <그림 3>에서 정리한 발표개요서를 (피드백 이후) 수정 보완하여,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실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한층 풍부한 발표로 완성되었다. 홍길동과 다르지 않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차별의 가해자가 바로 우리는 아닐지의 문제로 연계시킨 것이다. 참고로 이 <홍길동전>의 발표 이후, 차이와 차별에 대한 화두로, 관련

이야기들-성, 인종, 학력, 소수자 문제 등-의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에 학습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학벌문제의 경우, 해당 학습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렇듯 차별의 문제는 대타 관계로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주체와 객체가 전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토틀 발표와 관련 피드백 강의를 통해, 학습자들은 타자화된 여타 배경의 문제를 다시 자신의 문제로 이끌고, 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전문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한 인문학 강좌는 학습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낮설지 않은 것에서부터 낯설게 만들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창조적인 성찰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전서사문학은 학습자들에게 고전이 그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 다가설 수 있는 텍스트라는 것, 또 텍스트의 해석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논리적으로 만들어 이견을 가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에 대한 교수자의 ‘칭찬’과 ‘독려’이다. 앞서 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전문대학 학습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교양지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으레 판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는 교수자의 ‘칭찬하기’와 주기적인 면담과 피드백 등을 통한 라포 형성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이러한 현장 강의 경험은 학습자들의 주관식 강의평가 답변으로 반증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주관식 강의평가 문항의 대담 전문을 교열 없이 <표 5>로 제시하였다.⁴⁴⁾

응답자의 주관식 의견에는 교수자의 ‘열정’이 가장 많은 키워드로 포착된

다. 이러한 뜻의 다른 의미는 학습자들에게 열의를 갖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 연구자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내포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어 학습자들은 본 강좌와 같은 운영 방식이 처음이었으며, 고전 학습이 흥미로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⁴⁵⁾ 이러한 결과물로 볼 때, 고전서사문학으로 인문교양강좌를 활용하는 것은 강좌 설계와 팀프로젝트 기획 주제 선정 범주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 등에서 유용한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4) <표 5> 주관식 강의 평가 응답

Q1. 이 강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개선 및 건의사항, 강의실/실습실 및 기자재, 성희롱 문제 등)
1 몰랐던 문학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2 다양한 관점이 생겨 좋았습니다.
3 고생하였습니다.
4 교수님께서 공감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았다.
5 강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6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다.
7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8 생각보다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9 이해하기 쉽게 강의 수업을 진행해줘서 좋았습니다.
10 교수님 열정에 많은 힘을 얻었고 정말 수업을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수업도 너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고전문학을 현대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라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 수업 또 듣고 싶어요!
12 감사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13 처음 접해본 수업이라 흥미로운 수업이긴 했다.
14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 활기차서 좋았습니다!
15 교수님이 열정이 가득하셔서 좋았습니다.
16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45) 본고 2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강시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여서는 주관식 문항에 의견을 남겨준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5. 결 론

흔히 고전은 현재의 우리와는 다른 저 멀리에 위치한 이질적인 텍스트라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고전이 오늘날까지 살아남는 이유는 당대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텍스트임에도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 전문대학 학습자들을 위해 인문교양과 수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접근과 시도들이 필요하다. 물론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나 한계 등은 꾸준히 논의돼 온 바 있으나, 대학 본부의 의지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려 있다고 보아 기대효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서사문학을 활용하여 전문대학 학습자들을 교육하는 방안은 교양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고는 전문대학 인문교양교과 전반의 사례를 통계화하여 기술하지 못한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전문대학 인문교양교육으로서 교양국어과의 논의가 부족하고 특히 고전문학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대학 학습자들을 위한 인문교양교육의 방법론과 지평 확대를 위한 고민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만수, 『문화콘텐츠 유형론』, 글누리, 2010, 1~309쪽.
- 김민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학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연구』 2,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5, 15~32쪽.
- 김보현, 「웹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역사기록물의 문화 콘텐츠화 방식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283~308쪽.
-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30쪽.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13, 1~241쪽.
- 박나실, 「직업특성화 교육과정에 나타난 보통교과의 위상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02쪽.
- 송명진, 「교양으로서 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전문대학의 읽기·쓰기·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7~35쪽.
-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7~130쪽.
- 오세정, 「한국 신화를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고전연구학회, 2014, 109~136쪽.
- 이미정, 「의사소통 심화과정으로서의 토론 수업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8,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559~583쪽.
- 이숙정·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379~394쪽.
- 이은희, 「한국문화교육 자료로서 무속신화의 활용 방안 <자청비 신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2, 중앙어문학회, 2017, 475~510쪽.
- 박경주, 「대학교전교육문학의 현황과 그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 교육』 45,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20, 5~37쪽.
- 정선희,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 고전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7~426쪽.
- _____,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35~170쪽.
- 정창권, 「한국 고소설을 통해 본 한국역사문화의 트라우마와 치유 -역사, 사회, 가족 ; <홍부전>에 나타난 분가(分家)와 우애(友愛) 문제」, 『고소설연

- 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111~140쪽.
- 정철민,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철학』 73, 한국교육철학회, 2019, 141~163쪽.
-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5~82쪽.
- 주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 -교양교육 운영현황과 교수요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315~342쪽.
- 최윤오, 「홍부전과 조선후기 농민층 분화」, 『역사비평』 57, 역사비평사, 2001, 274~293쪽.
- 황인순 · 김보현, 「대학 교양국어교육의 고전문학 텍스트 활용 연구-비평적 글쓰기를 위한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31~54쪽.

ABSTRACT

Classical narrative literature as a requirement in
liberal arts education in vocational colleges

Han, Sae-hae

The study is aimed to understand the state of the liberal arts department in colleges by focusing on the liberal arts curriculum of Y colleg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attitudes and responses of learners toward classical literature, while emphasizing that offering humanities-classical subjects are crucial in vocational colleges. The educational system for students of a particular college is selected based on the center of the class focused on the training of the technicians, and this tendency seems to be based on the secondary curriculum(vocational specialization high school). Therefore, it maybe noted that a certain section of students who enrolled in vocational college lack the knowledge of other subjects. Therefore, in a liberal arts college where learners of various spectrums coexis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common denominator of learning through texts that do not have clear contact points in the educational gap. Currently, the contact point of educational content is reduced to elementary education or previous text, and it is judged that the restoration to the classical narrative is effective. Thus, the study presents a methodology of team projects and presentations to convey the effectiveness of classical narrative literature, and explore the operational plans to consider in the future. The evaluation satisfaction of students is, thus, analyzed to confirm the necessity of the classics in the liberal arts college curriculum.

Key Words

College of specialty, humanities, liberal arts education, classical narrative literature, role, methodology

논문투고일 : 2021.10.25.

심사완료일 : 2021.11.07.

게재확정일 : 2021.11.09.